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사회적 가족’ 과 방 탈출하다

광주 남구, ‘고독사 위험군’ 90여명 1대 1 매칭 행사 푸른길 걸으며 환경정화 활동도 “외로움 덜어줘 감사”

“집에서 벗어나 다함께 걸으니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과 만나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20일 오후 3시 광주시 남구 주월동 양우내안에 광장이 간만에 북적였다. 홀로 살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1인 가구 지역민들이 오랜만에 방 밖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강한 바람에 다소 쌀쌀한 날씨에도 이날 광장은 주민 170여명이 모였다. 고독사 위험군 90여명과 이들과 교류를 이어갈 사회적 가족 90여명 등은 첫만남에 어색함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내 밝은 표정으로 웃음꽃이 활짝 폈다.

이날 현장에서는 광주시 남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40~80세)를 대상으로 ‘함께하는 건강한 방 탈출’ 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돌봄 부재와 고립 등으로 사회적 관계가 단절돼 가는 고독사 위험군 주민을 사회적 가족과 1대1로 매칭해 푸른길을 산책하며 쓰레기를 줍는 행사다.

남구는 1인 가구 전수조사 결과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외출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나왔다는 점에서 이들과 꾸준한 교류할 ‘사회적 가족’을 매칭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마련했다.

참가자들은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된 이들이었지만, 이날만큼은 오랜만에 만난 이웃의 안부를 묻고, 처음 보는 사람들과도 반갑게 인사했다.

왕경태(64)씨는 “조금 쌀쌀하긴 해도 어제보다는 덜 춥다. 오랜만에 밖에 나오니 기분전환이 된다”며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할 기회가 적다보니 처음 보는 사람도 반갑다”고 웃었다.

노란 종량제 봉투를 손에 든 이들은 푸른길을 걸으며 곳곳에서 쓰레기를 주웠다. 1대1로 맺어진 사회적 가족과 손을 맞잡고 수다를 떨기도 했다. 행정복지센터 직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가족들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기울여 듣고 건강상태와 힘든 점 등을 물었다.

한참 동네의 역사를 설명하던 한 어르신은 “아들이 없으면 ‘판대’ 같은 이야기라고 타박했을텐데 잘 들어주시 자식보다 낫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울산에 사는 가족과 떨어져 홀로 광주에 거주 중인 이연순(83)씨와 주월2동 명지아파트 통장 이승희(여·49)씨는 서로 딸과 아버지라고 부르기로 했다.

이씨는 “2년 전 처음 만난 사이지만 어르신이 친 아버지와 닮아 마음이 쓰였다”며 “만날 때마다 안부를 묻고 반찬이나 김장김치를 전하기도 하며 마음을 터놓는 사이가 됐다”고 말했다.

이날 모인 1인 가구 주민들은 경제적 문제보다 외로움이 가장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고아원에서 자란 후 호흡기 장애 탓에 일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김기남(63)씨는 “평생을 혼자 살았다. 먹고 사는 건 복지 서비스 덕분에 문제가 아니지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 무지하게 외롭다”고 한탄했다.

실제 남구가 올해 실시한 고독사 위험가구 전수조사에서 1613명이 ‘지난 2주간 지속적으로 심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1주 동안 한 번도 외출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가 340명이었고, ‘지난 1주 동안 다른 사람과 한번도 소통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가 501명에 달했다.

조사 결과 대상자 1만5078명(응답자 1만2838명) 중 14명이 고위험군, 318명이 중위험군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외출을 꺼려하는 이들을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특히 남구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때문에 남구는 800만원(구비 300만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500만원)의 사업예산을 투입해 이들에게 상생카드 5만원, 백스푸이용권 등 1만5000원을 제공하며 적극적으로 설득했다.

정명은 백운2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장은 “특히 고독사 고위험 가구의 경우 가족이 없거나, 연락이 끊겨 사회적으로 단절된 분들이 대다수다. 이들은 식사를 잘 챙기지 못하고 몸이 아파도 참는 경우가 많다”며 “집밖으로 나오도록 설득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이번 행사를 기회로 잠시나마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면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광주에서 발생한 고독사는 2019년 113명, 2020년 118명, 2021년 111명, 2022년 117명, 지난해 94명으로 집계됐다.

/글:진진=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20일 광주시 남구 주월동 푸른길 공원 일대에서 ‘함께하는 건강한 방 탈출’ 행사가 열렸다. 고독사 위험 주민이 사회적 결연 가족 등과 쓰레기를 주우며 산책을 하고 있다.

‘납북 동림호 사망 선원’ 검찰 직권재심 청구로 50년만에 ‘무죄’

반공법 위반 등으로 50년 전 유죄 판결을 확정 받은 납북어선 동림호 선원이 숨진지 4년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광주고법 형사4부(재판장 양영희)는 2020년 사망한 납북어선 동림호 선원 A(1944년 출생)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1971년 5월 17일 군산항에서 출항해 어로 작업을 하다 납북됐다 돌아온 동림호(15.59t)의 선원이다.

그는 다른 선원들과 함께 1972년 5월 북한에서 되돌아왔지만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부는 A씨에게 반공법 위반 등의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고 1974년 확정됐다.

신평욱(85) 선장과 선원 5명(1명 생존·4명 사망)은 지난해 광주고법에서 재심 재판을 받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고인이 된 A씨가 해당 재판의 재심 대상에서 제외되자 지난해 11월 직권

으로 A씨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귀환한 뒤 구속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상황에서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고 재판부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불법 구금 상태에서 가족행위 등으로 인해 자백을 한 A씨의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다”면서 “불법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A씨의 혐의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북구 도축장 악취 사라지나...폐기물 재활용시설 폐쇄

지난해부터 민원만 700여건

광주시 북구 양산동과 본촌동 일대 악취민원(2023년 9월 11일 광주일보 7면)의 원인으로 꼽히던 육류 도축업체가 재활용 시설을 폐쇄했다.

20일 북구에 따르면 북구 양산동의 A축산은 지난 13일 폐기물 재활용 시설 2기에 대한 폐쇄 신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A축산은 1975년 도축업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해

왔다. 북구는 A축산이 지난해 1월부터 폐기물 재활용 시설을 설치해 부산물을 직접 처리하면서부터 악취 문제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북구에 접수된 악취 민원은 708건에 달한다. 지난해 여름(7월~9월)에만 447건의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북구 요청에 따라 A축산이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했지만 민원은 계속됐다.

결국 북구는 지난 8월 A축산의 폐기물 재활용

시설을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했다. 악취배출 시설은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거나, 악취 측정 기준 3회를 초과할 경우에 지정된다.

A축산은 지난해 검사 의뢰 8건 중 2차례 부적합, 올해 1건 중 1차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북구 관계자는 “A축산이 지난 8월 고시 이후 6개월 이내에 방지계획을 수립해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에 부담을 느껴 스스로 시설을 폐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알바생 임금 체불 ‘밥먹듯’...음식점주 검거

노동청 조사에 시간 끌다 입건 직전 임금, 형사처벌 면해 화

1년여간 알바생들의 임금을 체불한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2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노동청은 지난 18일 30대 남성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광주시 광산구에서 1년여 식당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10차례 식당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임금이 얼마 안되니 곧 지급하겠다”면서 노동자들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해 조사가 시작되면 시간을 끌다가 입건 직전에 임금하는

방식으로 형사처벌을 면해왔다.

A씨는 최근까지도 “임금은 곧 지급할 것이며 타 지역에 있어서 출석이 어렵다”며 수차례 노동청의 출석요구에 불응했고, 강제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근로감독관에게 “지금이라도 돈만 주면 끝나는 것 아니냐”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근로감독관은 지자체 협조를 받아 지난 18일 A씨 주거지에 잠복해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A씨가 체불한 83만원은 조사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전액 지급됐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서 홀로 살던 기초수급 여성 숨진 채 발견

광주시 북구 두암동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홀로 살던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20일 광주시 북구와 광주북부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A(여·64)씨가 북구 두암동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기초생활수급자로 혼자 살고 있던 A씨는 집을

방문한 지인에 의해 숨진채 발견됐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처리했다.

북구는 A씨의 가족이 시신 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두암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무연고 장례를 치르고 영락공원에 안치했다. /김다인 기자 kdi@

광주문화신협

광주문화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